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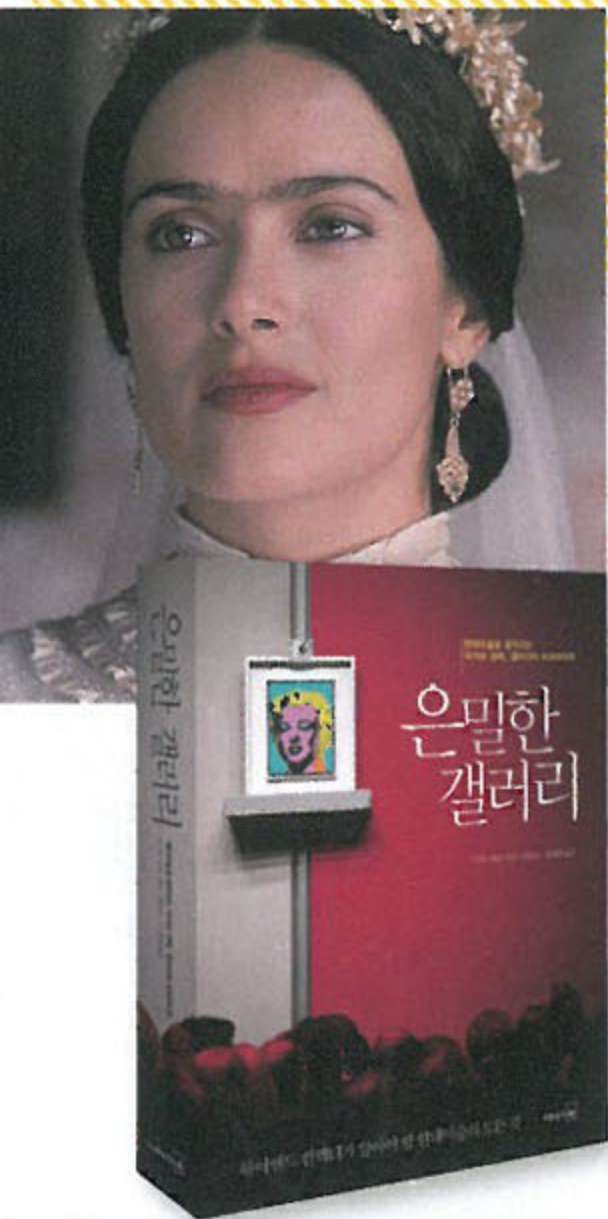
BVWV ART

Harper's

OCTOBER 2015

ART, AND THE MOVIE AND THE BOOK

미술을 읽는 열쇠이자 단서, 영화와 책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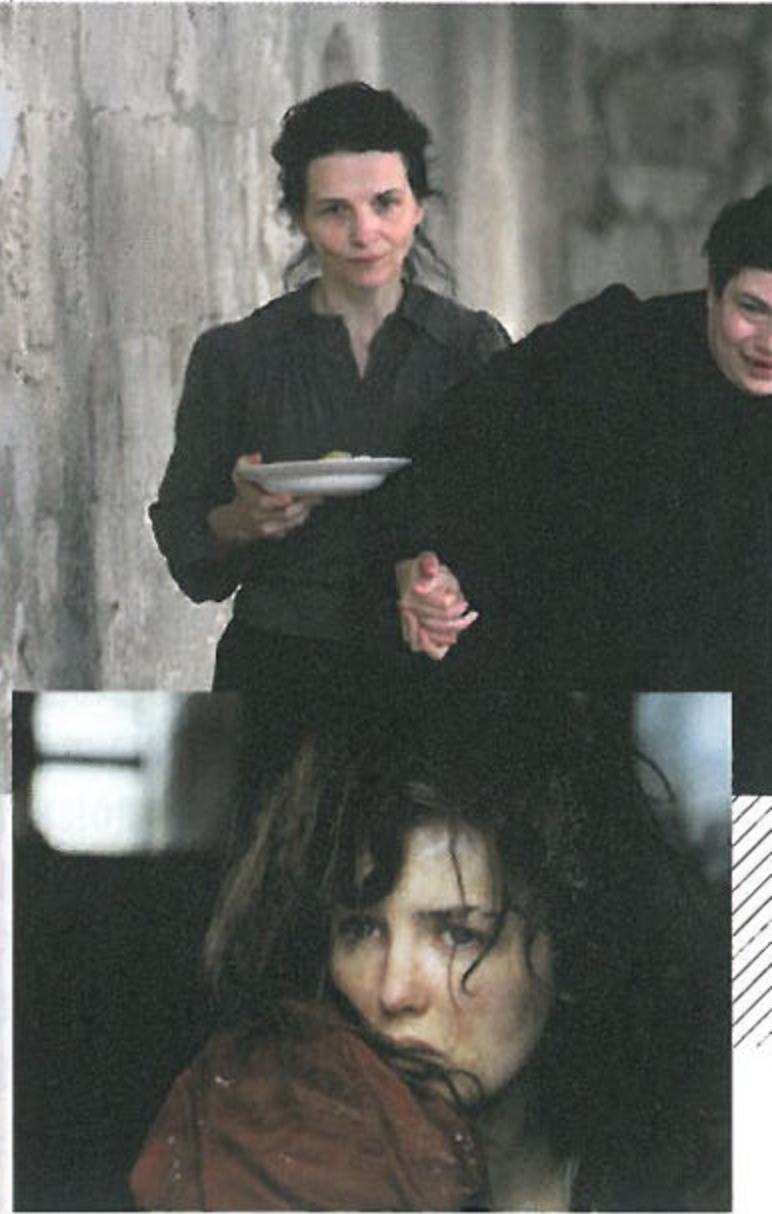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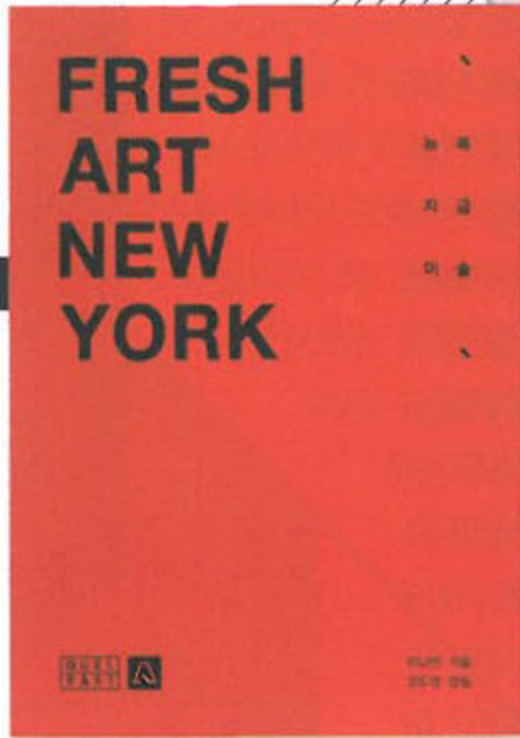
이정재 배우

은밀한 갤러리: 현대미술을 움직이는 작가와 경매, 갤러리의 르포르타주

현대미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컬렉팅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던 내게 속 시원한 조언가가 되어주었던 책이다. 도대체 현대미술이란 무엇일까, 하는 기본적인 물음부터 작품 값을 높이는 미술 시장의 연금술, 크리스티와 소더비처럼 이름난 경매회사가 어떻게 그림을 사고 파는지,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값나가는 작가들은 어떤 이들인지, 슈퍼스타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지녀야 하는지 등 술한 물음에 대해 경제학자이자 현대미술 컬렉터인 저자가 상세히 답해준다. 도널드 톰슨 지음, 리더스북.

프리다

예술가의 삶을 그린 많고 많은 영화 가운데 <프리다>가 단연 뇌리에 강렬히 남아 있는 건 프리다 칼로의 인생 자체가 그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일 것이다. 칼로의 작품과 그 영감이 되는 장면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고 실사와 CG를 섞어 화면 자체를 초현실주의 회화작품처럼 만든 방식 등 미술적으로 풀어낸 스타일도 좋았다. 줄리 테이머 연출, 2002년 작.



박민준 아티스트

Fresh Art New York 뉴욕 지금 미술

뉴욕에서 동고동락한 파트너가 지은 책이다. 7년간의 뉴욕 생활 동안, 나는 그림을, 그녀는 글을 쓰며 지냈다. 그 결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실제로 전시를 보듯 생생하게 쓴 리포트들이라 말 그대로 뉴욕에서 '지금' 열리는 전시들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교과서다. 제프 쿤스, 카라 워커, 신디 셔먼, 폴 매카시 등 유명한 작가들의 최근작들이 많은 도판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돼 있다. 이나연 지음, 켈파트 프레스.

까미유 끌로델

2013년 개봉한 브루노 뒤몽 감독의 <까미유 끌로델>과 1988년 만들어진 브루노 누이탕 감독의 <까미유 끌로델>을 동시에 추천한다. 익히 알려진 비운의 조각가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데, 이자벨 아자니가 연기한 25년 전의 클로델은 결국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줄리엣 비노슈가 연기한 2013년의 클로델은 30여 년간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의 모습이다. 한 예술가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브루노 감독과 두 명의 개성 있는 여배우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그만이다. 브루노 뒤몽(2013년 작), 브루노 누이탕(1988년 작) 연출.



박미나 아티스트

이것이 현대적 미술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단순히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모두 추천하기 좋은 책이다. 수십 명의 현대미술가들을 상세히 다루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큰 맥락을 잡아주고 풍부한 컬러 도판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기에 더 좋은 입문서를 찾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임근준 지음, 갤리온.

우디 앨런의 영화들

우디 앨런의 모든 영화는 사랑과 예술에 관한 위트 넘치고 냉소적인 수다로 채워져 있다. 전시를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곧잘 나오기도 하고 <미드나잇 인 파리>(2011)에서는 아예 1920년대로 날아가 모네, 피카소, 모딜리아니, 브라크, 마티스, 달리, 맨 레이 같은 그 시대 예술가들을 떼로 등장시키기도 한다. <카사블랑카여, 다시 한번>(1972)에서 우디 앨런이 미술관에서 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려고 말을 걸며 잭슨 폴록 작품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라든가 <맨해튼>(1979)에서 전시를 보고 난 후 신랄하게 평하는 장면(작가의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솔 르윗과 도널드 저드가 분명해 보인다)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정작 우디 앨런이 자서전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던 세잔의 사과 작품은 어떤 영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도 흥미롭다. 미술가였던 영화감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우디 앨런 만큼 미술을 좋아하고 잘 아는 감독은 유일무이한 것 같다. 우디 앨런 연출.



함영준 일민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아비 바르부르크 평전

도상해석학을 창시한 아비 바르부르크라는 학자의 평전이다. 도상해석학은 작품에 등장하는 조형 요소, 즉, 도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해석해보는 학문으로, 미술작품이 대상을 재현해야만 한다는 의무에서 탈출한 시대, 즉 모더니즘적 미술사의 시대를 열었던 학문이다. 미술가가 만든 물건으로 미술품의 범위를 국한하지 않는다면? 시야에 들어오는 장면은 물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마치 미술품 안의 도상처럼 분석해낼 수 있다면? 아비 바르부르크는 이러한 망상을 체계화해서 일상의 모든 경험을 시각적 맥락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다나카 준 지음, 휴먼아트 출간.

I've Heard The Mermaids Singing

평범한 여자 폴리와 잘난 여자 가브리엘. 폴리는 갤러리 큐레이터이자 직장 상사인 가브리엘의 '땃'에 반하지만, 둘의 관계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시퀀스에 의해 서서히 역전된다. 개인이 자연스럽게 체화한 예술적 감수성과 제 자아의 일부로 예술을 편입시키려는 욕망 사이를 오가는 주인공을 통해 예술의 허위를 앙증맞게 폭로하기도 하고, 현실과 예술의 괴리를 절묘하게 형상화한다. 예술에 대해 파악하기에 어렵다 생각된다면 이 영화를 보고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패트리샤 로제마 연출, 1987년 작.

